

장자크 루소는 <인간불평등기원론>을 썼다. 그는 원시시대의 인간은 자연 속에 살면서 나무 열매를 따먹고, 사냥을 하며 살았는데 언젠가부터 인간사회에 씨족, 부족국가가 생겼고, 또 근대국가로 이행되면서 땅을 많이 차지한 국가, 개인과 땅이 없는 국가, 개인 간에 불평등이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이 논리를 우리나라의 남녀 불평등문제에 대입시켜 볼 수도 있다.

유사이전에는 모계 중심사회였다. 그런데 농경사회 산업사회로 이행하면서 힘든 일은 남성이 하고, 비교적 쉬운 일(가사)은 여성이 하면서 어려운 일을 한 남성이 사회의 중심축에 진입했다. 거기에다 남존여비의 사회질서를 강조한 유교문화가 이 땅에 뿌리를 내렸고 그 후 일제식민지, 전쟁, 경제개발 등 시대적 아젠다(Agenda)가 진행되면서 남성중심사회는 '군현직 상식'이 되어 버렸다. 그러니까 여성들에게 사회진출의 문을 열어 놓지도 않으면서 여성을 '임팩트' 운운으로 폄하하면서 여성의 능력, 자질을 일방적으로 평가 절하시켰던 것이다.

사실 헌법상에는 남녀평등이 시피하게 살아 있지만 현실적으로 여성은 취업, 고용조건, 사회적 역할에서 현저하게 차별을 받고 있다.

여성만이 갖는 임신, 출산, 출산, 자녀양육 부담을 사회가 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사회에는



**불자 세상보기**

황진수  
한성대 행정학 교수

**보통 여성, 강한 여성**

불우한 환경의 미혼모, 저소득층의 근로여성, 빈곤선이하의 모자가정 그리고 윤락여성이다. 그들은 여성복지의 대상자(Client)로 늘 남아 있고, 정부당국이나 사회의 확실한 원조대책을 받지 못한 채 음지에서 신음하고 있다.

우리나라 여성은 사회경제적 지위에서 말바닥에 머물러 있다. 예를 들면, 2001년 현재 HDI(인간개발지수)에서는 총 162개국 중 27위이며, GDI(여성개발지수)는 146개 나라 가운데 29위에 머물러 있고, GEM(여성권한척도)은 64개국 중 61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 행정 관리직 중 여성비율은 5%에 불과하고, 정무직 여성비율도 세계 평균 10.8%를 밑돌고 있다. 국회의원 진출도 13%로 세계 163개국 중 평균 15%에 미달한다.

또 미국의 마스터카드 인터내셔널이 최근 13개 아시아, 태평양 국가의 남녀 사회 경제적 수준인 노동시장의 여성참여도, 대학교육, 임원비율, 평균임상 수입비율 등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가 13등을 했다는 것이다. 경제활동 참가율도 남자가 73.7%에 비해 여자는 48.3%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2005년 1월 통계청) 또 여성이

취업하고 있는 분야도 임신, 임용직급이 많다.

위의 통계치가 갖는 의미는 남녀 간의 불평등이 역사적으로 묵시적으로 진행되어 온 '관습법'일 수도 있고 또 여성 스스로 남성의 성(性)에 안주 해온 것도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이다.

스웨덴의 경우 전제가 낮을 때 남성들이 했던 탄광 광부, 기자운전, 중장비운전 등을 여성들이 맡아서 했고, 전제가 끝난 후에도 남성들에게 그 자리를 내주지 않았다. 현재 스웨덴은 국회의원 장관의 40%를 여성이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여성들도 대단한 면이 많다. 올림픽에서 우수한 성적을 낸 여자 선수들, 각종 골프대회에서 보내오는 승선보, 한국 여성의 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은 '보통 여성'이다. 거기에겐 강인하고 역척스러움이 있고, 아름다운 자태가 함께 존재한다. 그 모습이 우리의 어머니요, 누이요 그리고 딸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이제 21세기 국가발전의 '뚜껑을 따지 않은 보고'는 여성 인력과 고품질 인력이다. 이를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국력신장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여성의 문제는 '그에게 매일 물고기를 나누어 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는 말이 더 절실하게 들린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조계종이 재정자립을 위해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다. 최근 나온 <조계종 재정확대 방안 연구 보고서>는 종단이 경제적 기반 마련에 적극적 자세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조계종 중앙 종단의 예산 규모가 모교회 예산 수준의 5분의 1밖에 안된다고 하는 것은 조계종 재정의 취약성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이의 해결 없이는 여러 종교와 종단이 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건강한 종단으로 설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다.

그러나 한국 최대 종교의 거대 종단으로서, 또 무소유를 중지로 삼는 불교의 종단으로서 무조건 세입종대만을 피하는 방안을 세울 수는 없다. 타 종교나 타 종단을 참고하되 청정 종단의 위상을 해치지 않는 건전한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신도들에게 주는 만큼 되돌아온다는 사실에 입각해 재정확충 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우선 신도들의 긍지를 높여주고, 믿음을 줘야 한다. 그리고

**'재정확충'의 전제조건들**

결론적으로는 불교를 믿음으로써 괴로움을 벗어나는, 믿음에 따르는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 종단이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함으로써, 또 스님들의 청정한 수행상이 선양됨으로써 높아진 신도의 긍지가 종단재정의 바탕이다. 투명한 재정운영에 대한 신도들의 믿음이 안정적인 재정확보의 뿌리이다. 근본적으로는 기복 중심의 신앙행태를 벗어나 현실의 괴로움을 극복하는 참신하고도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조계종의 우월성을 드러낼 때 재정도 확보된다. 사업을 통한 수익을 피하려다도 기본적으로는 이런 측면을 우선해야 한다.

공익성을 띤 분야에 불교적 이념과 방법을 적용한 독창적 사업모델을 개발하여 사회적 평가와 세입 확대를 동시에 꾀하는 한편, 신도들의 종교적 요구에 부응하면서도 사업성을 띤 수 있는 영역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공략이 필요하다. 이런 기반에 충실할 때 종단의 위상을 높이며서도 재정확충을 꾀할 수 있는 다양한 길이 열리리라고 생각한다.

새로운 시적이 슬피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신도들의 보시에만 의존하는 틀을 벗어날 수 있는 것도 틀림없다. 새로운 재정자립의 틀을 모색하는 조계종의 결단에 지지를 보내며 좋은 결실이 있기를 기원한다.

■ 성대홍(건국대 교수)

**이렇게 들었다** 나눔과 베품

베품은 중생을 위한 복의 그릇이요 참된 진리에 이르는 길이니 누구라도 보시의 공덕을 생각하거나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내라. 베품은 널리 평등하게 골고루 하되 좋고 나쁨을 가리지 않아야만 베품은 마음속에서 나를 만나 구제받는 인연을 맺으리라. <중일아함경>

광주지점 목포지점에서 일명 '고구마와 벌금 사건'이 벌어졌다. 3월 18일 대검 홈페이지에 소개되면서 세상에 알려진 이번 사건을 접한 이들은 잔잔한 감동을 받았을 것이다. 이 사건의 주인공은 3년 전 고구마를 길거리에서 판매하기 위해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돼 70만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하루 생활하는 데도 베풀었던 터라 벌금을 갚지 못했다. 그는 목포지정 징수기동반에 의해 16일 검거됐다.

그러나 직원들은 평소와 같이 벌금 미납자를 구인해 노역장에 유치하지 못했다. 그는 예시엔 생활보호 대상자로 배우자가 지체장애 3급이었고 자녀 2명은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딱한 사정을 안고 있었다.

가장인 그가 노역장으로 유치되면 가족을 부양할 수 없었다. 직원들은 해결책을 찾았고 그가 파는 고구마를 사들이는 것으로 도움을 줬다. 고구마 판매대금으로 그는 벌금 절반을 납부했고 나머지는 분납키로 약속했다고 한다.

부처님께서는 "은혜를 이르는 깨끗한 믿음으로 남에게 베풀면 이 세상에서나 저 세상에서나 그가 있는 곳 어디라도 그림자처럼 복된 값음이 따르니 인색한 마음을 버리고 조건없는 깨끗한 베품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셨다. 이번에도 조건없이 도운 목포지정 직원들은 진정한 보시의 공덕을 쌓은 아름다운 사람들이다. 도움을 받은 그 역시 앞으로 베품과 나눔을 몸소 실천하게 되지 않을까. 요즘 같이 힘든 세상, 작은 온정이 모인 따뜻한 보시로 마음이 훈훈하다.

■ 강지연(해재부 기자)



**영문표기 틀린 절 표지판**

양평군 백운봉에서 장군봉으로 가는 등산로에 있는 절 안내 표지판은 양평군에서 세운 것인데 사나사와 상원사를 소개하는 영자표시에 절 사(寺)자 temple이 아닌 사당 사(室)에 해당하는 shrine으로 쓰고 있다. 빨리 고쳐지길 바란다.

우리스님(롯데뉴스)

**신도회관 없는 조계종?**

조계종에는 신도회관이 없다. 얼마 전 신도단체들이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에게서 살아갈 당시 정도는 틀렸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그런 의견이 되지 못해 지금까지 내 집 없는 설움을 겪으면서 살았는데 이제라도 신도회관을 건립하기 위해 적극 나서려는 것은 환영한다.

물론 정도회 측이 불법 사실을 시인하고 훼손 복원과 생태마을 조성을 약속했지만 이미지의 훼손과 도덕성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회복하기란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하므로 이런 과오를 다시는 되풀이 하지 않아야 한다.

**독자의 소리-이렇게 생각한다**

법장 스님은 이날 만남에서 신도단체들에게 좀더 자립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차제에 신도회 스스로 자립기반을 마련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종단에서도 재가불자 1000만을 대표하는 중앙신도회가 신도회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심 양면으로 적극 지원해 주길 바란다.

윤달식(부산 동래구 안락동)

**환경 훼손한 정도회에 실망**

언론을 통해 접해온 정도회의 다양한 활동에 언제나 존경스러운 마음을 품고 있었다. 빙그릇 운동을 비롯한 환경운동, 인도 등에서 학교건립과 자원봉사 활동 등은 불교NGO의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 항상 기쁘게 지켜봤었다. 그런데 며칠 전 TV뉴스에서 정도회 회원에게 수련원을 지으면서 불법 산림 훼손과 불법 농지 전용 등으로 사법 기관으로 부터 처벌받았다는 내용을 보고 충격을 금치 못했다.

벌금액은 100만원을 조금 웃돌아 얼마 안 되는 액수였지만 정도회가 그동안 벌쳐온 환경운동을 생각하면 이런 실수를 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물론 정도회 측이 불법 사실을 시인하고 훼손 복원과 생태마을 조성을 약속했지만 이미지의 훼손과 도덕성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회복하기란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하므로 이런 과오를 다시는 되풀이 하지 않아야 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정도회 뿐만 아니라 환경운동을 하는 단체나 산 속에 위치한 사찰들은 환경에 좀더 신경써야 한다. 스스로 청정해야 어떤 일을 해도 멋있을 수 있다.

이중수(광주 서구 화정2동)

**여법한 '역사문화도시' 되길**

경주시가 '역사문화도시'를 조성한다고 한다. 도시 자체가 거대한 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경주시는 문화재 보호라는 측면으로 인해 개발과는 거리가 좀 있는 곳이었다. 빙그릇 운동을 비롯한 환경운동, 인도 등에서 학교건립과 자원봉사 활동 등은 불교NGO의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 항상 기쁘게 지켜봤었다.

그런데 며칠 전 TV뉴스에서 정도회 회원에게 수련원을 지으면서 불법 산림 훼손과 불법 농지 전용 등으로 사법 기관으로 부터 처벌받았다는 내용을 보고 충격을 금치 못했다.

개발되고 난 후에 후회를 해서는 안될 것이다. 3조원이나 되는 사업비를 들여 2034년까지 30년 동안 꾸준히 하겠다는 계획이니만큼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지역 개발이 되기를 기대한다.

정지운(서울 광진구 능동)

**'연대' 민영** 심민섭



아주 큰 협회입니다. 사회에 대한 회담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불교방송 창사 15주년 기념, 중국 실�크로드 불교 성지순례**

동서양을 잇는 문명의 교역로, 실�크로드 성지순례!

불교방송에서는 창사 15주년을 맞아 오는 4월 16일과 23일, 5박 6일 일정으로 2회에 걸쳐 불자 여러분을 대상으로 중국 실�크로드 성지순례를 실시합니다.

서역 최대의 도시 우루무치를 시작으로 중국 3대 석굴인 막고굴, 삼장법사가 인왕경을 설법했던 고창고성과 세계문화유산인 교하고성 등을 견학하며, 만년설산과 초원의 눈부신 경치를 감상하고, 마지막 날에는 북경의 천안문과 자금성을 관광 합니다.

지도법사는 차 한잔의 선율을 진행하시는 진명스님 노적사 주지 종후스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 동참금 : 1,080,000원 (5박 6일)
- 비자 : 중국 비자비용 24,000원 별도
- 포함내역 : 1억원 여행자보험, 공항이용료 및 출국세 등
- 신청마감 : 출발 10일전 까지
- 출발 : 2005년 4월 16일(토요일) 4월 23일(토요일)
- 문의전화 : 불교방송 02)705-5302, 5303



일자	출발/도착	교통편	시간	주요 행사 일정	식사
제01일	인천	CA 124	11:00	인천국제공항 3층 L과 K카운터사이 집결	
4/16	북경	국내선	13:05	북경도착 후 국내선	중
4/23	돈황	CA1287	14:05	내선 공항으로 이동 북경 출발	중
			17:40	돈황 도착 후 호텔투숙 및 휴식	석
			20:30	HOTEL   대양호텔	
제02일	돈황	전용버스		아침공양 후 4세기부터 1000년에 걸쳐 조성된 막고굴 견학	조
4/17	유엔	아간열차	22:46	- 왕오전굴국인이 발견된 제17굴	중
4/24				- 조우관을 쓴 삼국인 벽화가 있는 제220굴 237굴, 335굴 명사산, 천년동안 마르지 않는 월이천 순례	중
				유원으로 이동 후 열차로 트루판 향방	석
				HOTEL   열차박(4인 1실)	
제03일	트루판	전용버스	06:50	트루판 도착 후 서유기의 배경인 화염산 및 석굴사원 천불동, 옛 고창국의 수도인 고창고성(삼장법사가 인왕경을 설법한곳)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교하고성, 소공명 견학 후 휴식	조
4/18				HOTEL   트루판 호텔	중
4/25					석
제04일	트루판	전용버스	전일	아침공양 후 우루무치로 이동 (2시간30분소요)	조
4/19	우루무치	전용버스		우루무치 박물관, 인민광장, 홍산공원	중
4/26				회족시정(버지리)등 견학 후 휴식	석
				HOTEL   은도호텔	
제05일	우루무치	전용버스		아침공양 후 천산으로 이동	조
4/20	천산	전용버스		천산 천지 유람 및 설산 조망 후 우루무치	중
4/27	북경	국내선	16:35	귀환 우루무치 출발 북경도착 후 호텔 휴식	중
		CA1902	20:05	HOTEL   특급호텔	석
제06일	북경	중국항공	14:00	아침공양 후 천안문광장, 자금성 관광 후	조
4/21		CA125		북경 출발 인천 도착 후 해산	중
4/28	인천		17:00	- 성별 하십시오 -	중